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심비우스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2 년 10 월 24 일 (월요일) / 장 소 : 이디야							
참석자 명단	학번	2017	이름	정○인	학번		이름	
	학번	2018	이름	조○지	학번		이름	
	학번	2019	이름	조○현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안○재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토의 책: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니란 말인가</p> <p><공동토론주제1 : 대학은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 주제 선정 이유: 책은 대학을 다니고 있는 20대와 함께 대화한 내용들로 전개된다. 북클럽 인원 전원 모두 '대학'을 다니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토론 주제에 대학과 이곳에서 얻을 수 있는 성장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선정하게 되었다.</p> <p>조○지: 실제로 북클럽이 아니었다면 읽지 않았을 것 같은 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이 출판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책이 '성장'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 우리가 알던 성장이란 자신의 꿈을 위해 달려가고 목표를 이뤄나가는 것이었는데, 책에서는 성장에 규정하는 틀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20대가 흔히들 자기계발이나 성장에 대해 많이들 고민해보는 시기인 만큼 사회에서 강요되는 것은 한 번 더 고민해보는 자세가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p> <p>나는 뚜렷한 목표라기보다는 배우고 싶다는 목표가 있었는데,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학문의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장 그 자체만을 두고 봤을 때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다.</p> <p>조○현: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한다면 성장은 있을 것 같다. 나는 글 쓰는 것과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여 사회·인문계열을 전공으로 선택하고 싶었지만 가족의 권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공계를 전공으로 선택하게 되었다. 원하지 않는 전공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헛투르게 쓴다거나 고등학생에서 벗어나지 못한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공대에 남아있어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원하는 방향으로 관심을 기울인다면 그것도 일종의 성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으며 어떠한 방향으로든 배움에는 성장이 따른다고 여긴다.</p> <p>안○재: 책을 읽음으로써 기성세대가 바라보는 성장이란 대학생이 바라보는 성장이란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로서로 성장의 기준치가</p>							

다르기 때문에 내가 성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남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애초에 왜 우리는 성장을 해야만 하는 건지, 성장에 대한 답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하다. 대학이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 현재 대학은 성장한다기보다는 취업 때문에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취업도 성장이 한 종류라면 종류겠지만, 내가 아는 성장과는 조금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다.

정○인: 책의 구성이 내 포레들의 인터뷰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쉽게 읽을 수 있어서 좋았다. 다만 거의 10년 책이라 현재 트렌드에 잘 따라가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대학이 성장에 도움이 될까? 그렇다면 우선 성장에 대한 기준을 확실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홍재님이 말씀해주셨듯, 성장에 대한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갈등이 생기는 것 같다. 내가 생각하는 성장이란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체력이 좋고 썸 사람이 되자는 게 아니라, 힘든 일이 생겨도 푹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다. 이것이 성장이 될 수 있다면, 나는 성장했다고 생각한다. 대학 생활을 남들보다 오래 했는데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다. 안 좋은 일을 많이 겪어가면서 경험이 생기고 일종의 내성이 생긴 것 같다. 앞으로도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이 있을 거지만 그때도 대학에서 겪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잘 이겨낼 거라고 믿는다.

<공통토론주제2 : 앞으로도 대학이 건재할 것인가?>

주제 선정 이유: 성장에 도움이 되는 대학이 앞으로도 필요할 것인지 논의해보고자 하였다.

정○인 과거에 비해서 대학에 대한 위상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한다. 과거나 현재의 경우 대학을 필수적으로 가야 했지만, 앞으로는 대학을 선택해서 갈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최근에 부실대학에 관한 기사를 봤는데 앞으로 지방대가 많이 줄어든다고 하더라. 대학이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는 만큼 수도권과 떨어진 지방대는 사라지고 전보다 더 수도권과 인접한 학교만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안○재 대학은 건재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20~30대의 취업난과 결혼에 대한 생각들이 현저히 줄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새로운 세대의 인구수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청년들이 점차 부족해져 가고 있다는 말을 의미한다고 보인다. 그러면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고, 서울, 경기 지역 외의 지방에 위치한 대학들이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의 수가 줄어들면서 한가지 추측할 수 있는 점은 학과를 더욱 세분화할뿐더러, 학생들을 위한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학이 건재하지는 않지만, 앞으로의 세대들을 위해 교육에 대한 양보다 질이 상승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조○지 출생률이 떨어지면서 문을 닫는 대학들이 많아질 것 같다. 우려

되는 것은 지방에는 국립대만 남고 상대적으로 서울에 대학이 집중적으로 밀집하는 것이다. 교육기관이 대학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의 기회 측면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현재의 대학은 젊은 세대, 20대들이 다니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중장년과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아져 이들을 위한 교육 수요가 늘어난다면 대학이 평생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조○현 인구수는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이에 비해 대학의 수는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대로 가면 대학은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되며 지금과 같은 여러 학문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의대처럼 각 대학의 메이저 학과만이 남은 형태로 운영될 것 같다. 또한 최근 뉴스를 보면 신입생의 20% 정도가 자퇴를 한다는 통계를 보았는데 이를 미루어보면 과거 대학은 고교 졸업자의 일부만 진학하였던 소위 대학 엘리트 사회가 재현될 것이라 예상되며 이는 곧 대학은 건재하나 지금과는 다른 형태이자 소수 정예 학원과 같은 맥락으로 변할 것이라 생각한다.



2022 년 10 월 24 일

참가자대표 : 정○인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심비우스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2년 11월 2일(수요일) / 장 소 : 비대면 줌							
참석자 명단	학번	2017	이름	정○인	학번	20181104	이름	조○지
	학번	2019	이름	조○현	학번	20212630	이름	안○재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토의 책: 단편소설 모음집 SF소설 테드 창 ‘숨’</p> <p><공통토론주제1 : AI에게 감정 느낄 수 있는가?> 주제 선정 이유: ‘숨’에 실린 단편소설 ‘소프트웨어 객체의 생애 주기’는 인간과 ‘디지엔트’라 불리는 AI와의 교감을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AI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인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p> <p>조○지: 소설에서 애나가 과거 사육사였던 경험을 살려 회사에서 디지엔트를 교육하는 것을 마치 동물을 기르거나 혹은 아이를 양육하는 것처럼 대했기 때문에 AI에게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소설 후반부에 데릭이 디지엔트보다 인간인 애나를 택한 것처럼, 만약 AI와 인간 둘 중 골라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AI를 택하기는 힘들 것 같다. 그러나 인간과 동일 선상이 아니더라도 AI에게 감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p> <p>조○현: 소프트웨어 중에서 인간이 아닌 존재에게 감정을 준 등장인물을 보면서 꼭 디지엔트가 아니어도 애착 인형과 같은 사물에 정을 주는 인간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이 들었다. 은지님이 인간이 디지엔트를 양육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셨는데 내 생각으로는 디지엔트는 학습하는 기계일 뿐이며 양육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입장에서 칭하는 것일 뿐이라고 여겨지며 그들은 코딩된 대로 수행하는 것이며 더욱 자세하게는 인간이 설계한 회로에 따라 상황에 맞는 반응을 하는 것이므로 감정을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한다.</p> <p>안○재: AI에 몇몇 감정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AI는 인간을 뛰어넘을 정도로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형의 모습이 인간이나 반려동물의 다양한 모습들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AI를 아끼거나 그들을 보면서 행복을 느낄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이 AI에 사랑하는 감정은 느끼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자신과 유사하게 닮으면 불쾌함을 느끼는 ‘불쾌한 골짜기’ 단계에 이른다. ‘불쾌한 골짜기’ 이론을 통해 AI를 좋아하는 감정 내지는 우리를 위해 같이 살아가서 행복한 감정을 느끼거나,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대체재 혹은 AI가 인간을 지배한다는 상상을 통해 두려운 감정을 느낄 수 있겠다. 하지만</p>							

그들을 사랑하여 연인이 되고 싶거나, 결혼의 상대가 되어 미래를 상상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래서 AI에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는 있어도 사랑하는 감정을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정○인: 'Her'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 주인공은 AI와 정서적 교감을 한다. 과연 나왔어도 가능했을까 생각해봤지만 기계와 감정을 나눈다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던 와중에 로봇의 기능을 테스트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내구성을 검사한답시고 로봇을 무자비로 폭행하는 영상이었다. 아무래도 폭력이 들어가서 그런 것인가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 로봇에게 동정심을 느끼는 것으로 보아 스스로도 AI에 대한 감정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공통토론주제2 : '숨' 읽으면서 느낀 점>

주제 선정 이유: 모두 표제작인 '숨'을 어렵게 읽었기 때문에 각자 '숨'을 어떻게 읽었는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조○현: 작품 숨 중에서 공기는 오늘날 우리 세상의 자원과 동일하다고 여겨졌다. 화자가 자원 고갈로 인해 문명이 멸망할 것을 알아채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자원을 찾아 떠나는 행동도 했으나 결국 멸망을 막지 못하고 최후에 남긴 글을 보며 화자가 나에게 작중에는 문명이지만 현실로 보면 죽음과 같으니 결말을 보며 낙심하지 말고 정진하라 말하는 것과 같이 다가왔다.

정○인: 작가가 자신의 머리를 파헤치면서 진리는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말하고 있는 책 같다. 다른 챕터에 비해서 상당히 철학적이고 어려웠다. 대사가 아예 없이 작가의 독백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구조라 상당히 따분하였는데, 자신의 머리를 해부하는 부분에서는 작가의 진리를 추구하는 의도가 집념적으로 보여 가치 상을 받을 만하다고 느껴졌다. 인상적이었던 막판에 나오는 크롬 벽에 대한 내용이었다. 세상의 끝 하면 수평선이나 지평선으로 나타낸 것이 아니라 크롬 벽으로 규정짓는 게 인상적이었다.

안○재: '숨'을 읽으면서 나에게 너무 어렵다고 느껴진 내용들이 많았다. 이 책은 공상 과학 계열의 내용으로, 인간의 한계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앞으로 우리에게 도래할 문제들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 책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감정은 매우 불안하고 가슴이 답답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는 인간이라서 앞으로의 고난들을 이겨냄과 동시에 인류가 지구에서 살면서 기술의 발전을 통해 현재까지 우리는 잘 살아오고 있지만, 앞으로 미래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다가오면서 인류의 멸망까지 생각해본다면 인간이라는 자체가 정말 우주에 비하면 한없이 작은 존재구나! 느껴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서 인간이 모든 것을 해결하면서 앞으로의 일들도 당연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오만함

을 지적하여 읽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 또한, '숨'을 읽으면서 나에게 수준이 맞는 책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다. 단순히 두꺼운 책과 심화된 지식만을 고르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러면서 나의 수준과 배경지식을 쌓고 숨을 다시 읽어 보면 또 새롭게 다가올 것 같아서 기대되는 책이다.

조○지: 다 읽고 나서 작가의 의도가 뭘까 생각했다. 잘은 모르겠지만, 마치 운명론에 대응해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가?'에 대한 질문 같기도 했다. 숨의 화자는 자신과 그가 속한 세계와 문명이 멈춘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럼에도 훗날 누군가 읽을 글을 남긴다는 것은 끝이 분명한 운명이 정해져있더라도 그 과정에서 일궈낸 모든 것들, (화자도 서술했듯) 시나 소설, 음악과 같은 문명 등이 모두 의미를 잃지는 않는다고 느껴졌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허파를 통해 숨을 공유한다는 설정이 너무나 낭만적이게 느껴졌다!

<공통토론주제3 : AI가 인간의 모습(감정과 지식)을 갖춘다면, 과연 인간으로서 인정해줄 수 있는가?>

주제 선정: 책을 읽고 미래에 AI가 더욱 발전하여 인간 수준의 감정과 지식을 갖춘다면 과연 인간으로서 인정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이에 대해 토의하고자 했다.

조○현: ai는 결국 기계이며 기능에 한계를 두지 않은 기계를 인간으로 대우해 준다면 훗날 인간은 고도화된 기능을 가진 기계에게 종속될 것이므로 그들을 법적 인간으로 대우하거나 인정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ai가 인간의 지위를 갖는다는 가정을 하에, 그것들은 사람이 생산 함으로써 생산자에 종속되므로 특정 단체, 개인이 그것들을 양산 할 것임이 자명하다. 이것은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으며 이것이 특정 단체, 개인에게 과하게 집중되면 서로의 기득권 쟁탈 혹은 전쟁과 같은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의 지위를 갖고 있는 기계를 양산하게 되어 결국 인간 자체는 소수 종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므로 인정 할 수 없다.

정○인: 요즘에는 AI가 창작물도 만들어내고 이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해 줘야 하는지에 대한 이슈도 있다고 들었다. 저작권을 인정해주려면 AI를 인간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먼저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AI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데에는 간접적인 영향만 미치기 때문이다. 결국 AI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간이다. AI를 만드는 것도 인간이고 그 안에 데이터를 넣는 것 역시도 인간이다. 아직까지도 인간이 AI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인간으로서 인정해주는 게 어렵다는 것이 내 답변이다.

조○지: 인간으로 인정해줄 순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분명 다른 존재로 인정해줘야 할 것이다. '소프트웨어 객체의 생애주기'에서 법인화 된 ai

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회사를 운영하는 내용이 나온다. 무엇이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ai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을 인간과 동일하게 인정할 순 없겠지만 ai와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ai를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가 계속 필요할 것이다.

안○재: 감정과 지식을 갖춰도 인간으로서 인정해줄 수 없다. 인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물들도 그들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생물이다. 그렇다면 동물도 인간으로 인정해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정답은 아니다. 같은 역량을 갖췄더라도 이는 다른 개체로 분류한다. AI 역시 동일하게 인간의 감정과 지식을 갖췄다고 해서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다. 만약 그들을 인간으로 인정해준다면, AI는 인간이 아닌 새로운 개체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인간과 다르게 감정과 지식은 인간을 통해 입력되고 표출해야 감정과 지식을 갖출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능동적인 인간과는 다르게 부여받아야 하는 수동적인 AI는 인간이라고 인정해줄 수가 없다.

2022년 11월 2일

참가자대표 : 정○인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심비우스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2 년 11 월 07 일 (월요일) / 장 소 : 이디야							
참석자 명단	학번	2017	이름	정○인	학번		이름	
	학번	2018	이름	조지	학번		이름	
	학번	2019	이름	조○현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안○재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책 : 포스트휴먼이 몰려온다 1장, 2장</p> <p>토론 주제 선정이유 :</p> <p>1) “ai가 발전함에 따라 그들의 능력은 인간을 넘어설 것이다.”를 보며 인간을 넘어선 존재가 동물처럼 학대받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픈 것을 보아 도덕적 지위가 필요할지 토의하려한다.</p> <p>2) 미디어에 등장하는 사이보그들은 대개 인간이 신체 일부를 기계로 교체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그들은 미디어마다 사이보그이지만 인간 취급을 받는 경우와 받지 못하는 경우로 나뉘어 묘사되는데 이 부분을 각자 어떻게 생각하는가?</p> <p>공통토론주제 :</p> <p>1) ai에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지</p> <p>조○현 : 과거에 동물을 음식으로 보아 죽기전에 학대를 해도 사회적 문제로 크게 발전하지 않았으나 인간의 도덕발전으로 동물학대 법이 생겼듯이 훗날 기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 의해 동물학대방지법과 같은 맥락의 법이 생길 것 같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태생이 생물인 동물과 다르게 인간의 손에 창조되며 작업의 효율을 위해 만든 기계에게 정을 주고 특정 지위를 부여한다면 일하는 ai와 인간과 함께하는 ai의 취급이 달라지게 되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 생각한다.</p> <p>정○인 : 저번 토론 때 AI에게 인간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말했었는데 도덕적 지위는 조금 다른 것 같다. 동물에게도 동물 학대 방지법 같은 도덕적 지위를 부여해주는데 기계라고 다를 바 없을까? 없던 것이 생기는 것이라 법 체계가 복잡해지겠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4차산업 시대에 필수적으로 의논해봐야할 것 같다.</p> <p>조○지 : ai가 도덕적 판단을 주체적으로 내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책에서 실험을 위해 로봇을 마구 때리는 영상에 많은 이들이 불쾌감을 느꼈던 것처럼 그들을 도덕적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할 순 없을 것 같다. 홍재님 말씀과 달리 의식의 여부는 상관이 없을 것 같다. 인간과 같이 의식을 분명히 특정할 수 없는 동식물과 자연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ai 역시 마찬가지로 도덕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p>							

안○재 : AI에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긴 하나, 전제 조건이 인간과 같은 올바른 사고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AI가 인간보다 지능적인 면에서 우세하다고 해도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인간처럼 이성적인 사고가 불가능하고, 모든 지식이 인간을 통해서 입력되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 지위는 좀 더 고려해 봐야 한다. 또한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게 된다면 악용 사례가 분명 많아질 것이고, 인간만 해당하던 권리와 법들을 다시 규율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여할 수 있어도 새롭게 제정한다는 점에서 조금 어려우리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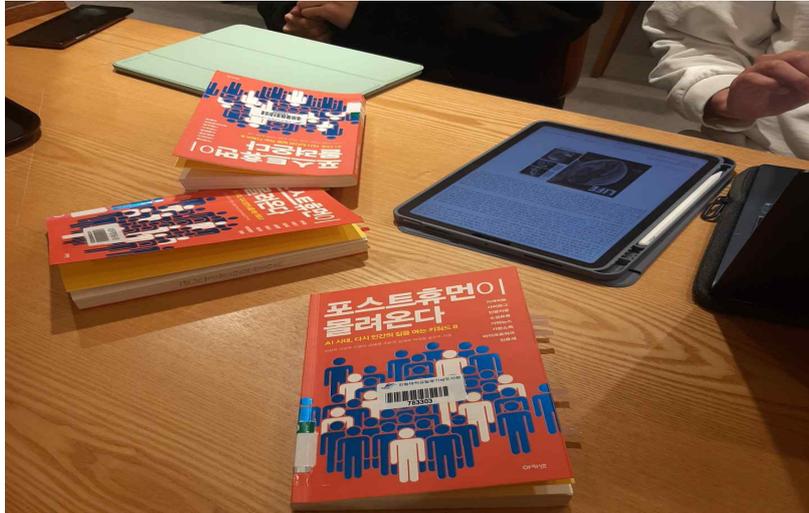
2) 신체를 기계화 한 사람을 인간이라 부를 수 있는가?

조○현 : 몸을 기계화한다면 그것은 기계라고 생각한다.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이유는 성장과 노화가 진행되어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존재로 살기 때문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몸을 기계화하여 정기 정비를 받으며 컨디션을 유지하며 나아가 영생을 유지할 수 있는 인간이었던 기계를 인간이라 부르기에는 제한된다. 사이보그는 인간이었던 기계라 부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며 의료 행위를 위해 신체의 일부를 교체한 것까지가 인간이라 여길 수 있다 생각한다.

정○인 : 뇌를 건들지 않는 이상은 인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에게 뇌는 단순히 신체 중 어떤 일부가 아니라 정신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총체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책에서 나오는 팔이나 다리를 기계화 한 경우는 조금 더 발달한 의족과 의수 같은 경우이지 이것을 과연 사이보그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의문이기도 하다.

조○지 : 인간의 몸이 상당 부분 기계화된다면 인간으로 볼 수 있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존의 인간과는 상당히 다른 형상일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새로운 유형의 '인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그들을 이해하는 방식 또한 새롭게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인간'이기에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그들에겐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안○재 : 인간으로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몸을 기계화했지만, 실제의 본 모습은 인간이기 때문이다. 로봇이 인간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인간이라고 부르지는 않고 로봇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이다. 인간도 로봇처럼 몸을 기계화했어도 원래의 모습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기계화한 사람의 입장을 통해 AI라고도 불러줄 수 있다고 존중하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누군가가 로봇이냐고 물어본다면, 로봇보다는 인간으로서 그를 인정해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활동사진 첨부

2022년 11월 7일

참가자대표 : 정○인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심비우스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2 년 11 월 20 일 (일요일) / 장 소 : 줌 미팅 활용						
참석자 명단	학번	2017	이름	정○인	학번		이름
	학번	2018	이름	조○지	학번		이름
	학번	2019	이름	조○현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안○재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책 : 포스트휴먼이 몰려온다 3장~6장</p> <p>토론 주제 선정이유:</p> <p>1) 생명과학기술 발전으로 인공자궁과 유전자가위로 이상적인 아이를 생산하는 미래는 옳은가? 라는 공통된 질문이 모여 토의하려한다.</p> <p>2) 현재에도 논의 중인 사회적 주제이며 언젠간 다가올 미래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들어보고자 한다.</p> <p>공통토론주제 :</p> <p>1) 필요할 때 원하는 아이를 만드는게 옳은 일인가?</p> <p>조○현 :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나 동성 부부에게는 희소식이지만 부모가 원할 때 아이를 만든다는 것은 과거 아이를 신이 준 선물로 여긴 것과는 다르게 그저 원해서 만드는 물건과 같은 취급이 될 것이며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점점 무시하게 될 것이다. 비슷한 예시로 대리모가 있는데,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아이의 친부모는 아이를 원했기에 출산했다 하더라도 그 아이의 대리모를 자칭하는 사람이 이 행동을 진정으로 원했다기보다는 경제적 지원을 담보 받았기에 행한 것임을 오늘날 모두가 알고 있다. 즉 이러한 기술은 일부 환자 및 기타 사항이 있는 이들에게는 긍정적인 기술이지만 그 외에는 인간의 존엄성 훼손 및 인간의 유대감 형성 억제라는 이유를 들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p> <p>정○인 : 내가 가지고 있는 실존주의적 입장과 반한다. 실존주의란 정해진 목적 없이 생성되는 것이다. 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인간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이렇다 할 결과도 가지지 않아도 된다. 대리모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은 목적이 있는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과 같다. 그냥 태어나서가 아니라, 정해진 목적이 생겨난다. 원하지도 않았는데 태어나면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면 내 존재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아이들의 상처가 너무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p> <p>조○지 : 소위 말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태어난 아이들도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품고 혼란을 겪을 때가 많다. 그런데 인공 자궁과 같이 우연성이 상대적으로 배제된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태어난 아이들은</p>						

정제성에 더욱 혼란을 겪을 불행의 바탕을 갖게 되는 것 같다.

안○재 : 필요할 때 원하는 아이들을 만드는 것이 여러 방면에서 남에게 피해가 없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 질문을 통해 닭과 비슷하다고 느껴졌는데 좁은 철창 안에서 알을 낳기 위해 사는 기계적인 삶은 아무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지만, 좁은 공간에서 모이만을 먹고 살아가는 닭이 그 상황을 자처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부모가 아이를 언제 낳는 것은 문제가 전혀 되지 않지만, 낳음을 당하는 아이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그것은 올바르다고 할 수 없다. 아이의 입장에서 단순히 기계에서 필요할 때, 만들어져 나오는 물건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필요할 때 아이들을 만드는 것은 옳다고 말할 수 없다.

2) 기본소득에 대한 생각

조○현 : 향후 인간 대신 ai가 노동의 전부 혹은 상당 부분을 대체하게 될 것을 예상하며 기본소득에 대한 말이 오가고 있다. 모든 이가 차별 없이 평등하게 같은 금액을 받는 기본소득의 시행은 인간 모두가 평등하며 지위가 없고 계층이 존재하지 않는 유토피아가 아닌 이상 실행하면 안 될 것 같다. 기본소득의 취지는 자동화를 통한 노동시장의 변화를 안정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것이지만 훗날 이런 취지가 변형되어 주는 입장과 받는 입장의 계급화가 이뤄질 것이며 영화 “인 타임”과 같이 계층 이동이 불가능한 절대적 사회로 발전될 것 같다는 생각이기에 기본소득에 반대하며 기본소득에 사용될 예산을 현 기초생활 수급자나 그 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개선에 사용된다면 기본소득의 취지만큼의 사회적 효과를 거두며 다가올 노동 자동화 시장에 노동자 스스로가 준비할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다. 탈무드에서 말하길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라고 하였다. 기본소득 대신 자동화 시대에 맞는 인물이 되도록 돕는게 올바른 사회의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정○인 :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직업군들이 사라진다고 한다. 따라서 이를 대비해서 기본소득을 주어야 한다는 기본소득 찬성자들의 의견들이 있다. 기본소득을 주어진다면 기본소득이 주는 장점들이 있다. 우리 같은 20대들에게는 기본소득이 주는 가장 좋은 이점으로는 취업에 투자하는 비용이나 시간을 세이브해 주는 점이 그러하다. 실례로도 경기권에서는 청년 기본수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장점만을 두고 생각했을 때 발생하는 단점들도 있다. 우선 우려하는 부분은 국가의 경쟁력이다. 소득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줄어든 노동시간 때문에 일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발생할 것이고 이는 다시 국가 경쟁력을 낮추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극단적’ 예시이지만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다른 국가의 선례를 봐서라도 아직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조○지 : 향후 ai가 인간의 노동의 상당 부분을 대체하게 될 것을 예측하여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떠오르고 있다.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수당이 주어지는 기본소득에 의의는 분명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정책이 더욱 잘 시행된 이후 지급되어야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가 더욱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지금과 같이 그들의 처지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현실적으로 기본소득이 갖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부각될 것 같다.

안○재 :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물론 기본소득을 통해 모두가 같은 소득을 받는 동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부족해서 하지 못했던 다양한 것들을 경험할 좋은 기회가 된다. 그 부분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해 충분히 찬성하는 입장하긴 하나, 재분배를 위해서는 수익이 높은 사람들이 짊어지는 세금이 더 증가할 것이다. 부족한 사람과 풍부한 사람의 평균을 맞추기 위해서는 값이 비슷해질 때까지 누군가는 희생해야 한다는 것인데, 모두 평등해지기 위해 기본소득을 채택한다는 것에서는 분명히 평등이 존재하기 위해선 불평등이 동시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비슷한 예시로 실제로 북한과 남한과 통일한다면 둘의 성장 속도는 다르기 때문에, 둘이 동등해질 때까지 남한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것을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둘 다 같은 성장점에 다다르면 엄청난 발전을 이루겠지만, 그 결과를 위해 가는 과정이 너무나도 험난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활동사진 첨부

2022 년 11 월 20 일

참가자대표 : 정○인

북클럽 운영보고서

북클럽 팀명	심비우스							
운영일시 / 장소	일 시 : 2022 년 11 월 28 일 (월요일) / 장 소 : 이디야							
참석자 명단	학번	2017	이름	정○인	학번		이름	
	학번	2018	이름	조○지	학번		이름	
	학번	2019	이름	조○현	학번		이름	
	학번	2021	이름	안○재				
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	<p><책의 제목 및 저자></p> <p>책 제목: 아몬드 저자: 손원평</p> <p><책 주제 선정이유></p> <p>우리는 모두 다 똑같이 태어났지만, 누군가는 사회의 낙오자가 되고 속이 비틀린 사람이 된다. 그중에서 그런 조건을 딛고 성장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삶을 사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공감과 평범함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자 책을 선정하게 되었다.</p> <p><책의 총평, 공통토론주제1 : 무조건적인 공감이 긍정적인가?></p> <p>조○지: 긍정적이지 않다고 본다. 보통 공감은 분위기에 맞추기 위해, 어떤 무리나 집단에 어울리기 위해 한다. 하지만 공감을 요구하는 것에 실제로 동의하지 않을 때가 있다. 나의 경우, 그럴 땐 대부분 구태여 '난 그렇지 않아'라고 말하기보단 침묵으로 일관했던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공감이 사람들과 교류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여겨질 때가 있지만 무조건적인 공감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사람과의 사이를 단절시키는 것 같다.</p> <p>조○현: 상대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다. 상대가 시험에 떨어졌다거나 하고픈 일을 하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느낌이라면 그 아쉬움에 공감하며 위로와 응원의 말을 하겠지만 이것 외에 자기 생각과 다른 상대의 생각에 맹목적이며 무조건적인 공감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무조건적인 공감이 가능한 경우는 극히 일부라 생각하며 이 외의 경우는 자신의 지조가 없는 사람의 불건전한 인간관계라고 생각한다.</p> <p>안○재: 무조건적인 공감이 긍정적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우리는 남이 어떠한 일을 겪었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나의 일처럼 생각하여 행동하는 공감의 자세가 상대방을 위한 자세라는 것이라고 배웠다.</p>							

그래서 그 상황이 공감되지 않아도 우리는 공감하려고 한다.

1차원적으로 그것이 공감하는 것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잠깐 해결할 수 있지만, 다차원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무조건적인 공감에 대해 반감을 살 수 있어서 부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정○인: 공감이 주는 힘은 좋은 것 같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공감 자체가 과연 사람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에게 유리한 말이나 따뜻한 말만 받아들여려는 성향이 강한 것 같다. 하지만 사람이 성장하려면 쓴소리도 받아들여야지 본인 앞길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한다. 옛날에는 사람들의 말에 무조건 공감해주고 그 친구에게 긍정적인 말만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현실적인 조언과 같이 말해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아몬드를 보면서 친구의 말에 공감을 못 하고 있는 내 모습이 겹쳐서 보였는데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서라도 좀 개선해야 할 것 같다.

<공통토론주제2: 자신이 생각하는 '평범함'이란?>

조○지: '평범하다'의 사전적 정의는 '뛰어나거나 색다른 점이 없이 보통이다.'이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 사실 평범함은 무척 어렵다. 무언가 뛰어나 튀는 것도 힘들지만 그를 바탕으로 묻어가는 것 또한 쉽지 않기 때문이다. 흔히 드는 예로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까닭은 밤이 오고 까만 하늘이 드리우기 때문이다. 평범함과 비범함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사회에서 요구하는 평범함은 일정한 틀이 정해져 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의 조건들을 내걸며 평범하게 살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 기준이 오히려 너무나 많은 이들의 삶을 오히려 비참하고 힘겹게 만든다면, 평범함과 그를 강요하는 사회 구조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조○현: 모든 이들이 성장환경이 동일하지 않은 만큼 그들이 성장하며 겪은 일 또한 다양할 것이다. 그렇기에 그들의 당연함은 누군가에게 당연하지 않음이고 그들의 평범은 누군가의 이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평범이란 오늘날까지 내가 살아오며 익숙했던 것들이라 생각한다. 서로의 평범함이 다르다 보니 서로가 크게 겹치는 부분을 암묵적으로 사회적 기준을 삼는 것으로 생각한다. 나는 성장환경이 어느 정도 다름을 인정하며 서로의 평범함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사회구성원의 평범의 시작이라 생각한다.

안○재: 내가 생각하는 평범함이란, 운동장의 돌멩이와 같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각자 자연스럽게 스스로의 모양(모습)으로 녹여낼 수 있는 자세라고 생각한다. 운동장 전체를 바라보았을 때는 단순히 흙 위에 있는 돌이지만, 가까이 바라보았을 때는 그 평범한 돌멩이의 모양과 단단함(가치관)이 각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 또한 누구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함께 있을 때 하나의 운동장으로 보여질 수 있는 남을 위해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배려의 자세라고 생각했다.

정○인: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이제는 평범하기가 어려워진 사회인 것 같다. 현재는 학생 신분이라 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절제하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고 있지만, 주변에 취직한 친구들을 보면 다들 일에 치여 사는 느낌이라 많이 힘들어 보인다. 또 한편으로는 그 친구들은 취직한 자신들이 평범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나를 철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 같다. 평범에 대한 기준은 이처럼 사람마다 다르다.

<심비우스 북클럽 후기>

조○지: 홍재님 말씀처럼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북클럽을 하면서 정이 든 것 같다! 앞으로 모임이 2번 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 아쉽다. 평소 문학 위주로만 읽어왔는데 북클럽을 통해 자기계발서나 SF장르, AI 관련 서적과 같이 자주 접하지 않았던 책을 읽을 수 있어 좋았다. 특히 오랜만에 유의미한 대화를 할 수 있어 좋았다. 책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다른 의견도 들으면서 재미를 많이 느꼈다.

조○현: 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참 짧았던 활동인 것 같다. 초면인 사람들이 모여 한 책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처음 알았으며 평소 내 관심사 밖의 책들을 읽어볼 기회가 되어 새로운 경험이었다. 친구끼리의 시시콜콜한 농담이 아닌 유의미하고 서로의 생각이 투영된 진지한 이야기가 오가다 보니 그 속에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배경을 유추할 수 있었고 단순히 내 의견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의견을 이해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다. 추후 이런 기회가 또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며 새로운 주제로 여러 의견을 나누어보기를 희망한다.

안○재: 북클럽은 만족하면서도 굉장히 아쉬웠던 활동이었다.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이지만, 활동을 해보고 나니 책을 기간 내에 읽어야 한다는 압박감과 강제성이 생겨서 책의 내용을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시간에 쫓기는 것이 조금 버거웠다고 느껴졌다. 그렇지만 책을 읽고 나서 선배님들과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재미있는 시간 중 하나였다. 서로의 의견을 공감해주고 경청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 취지의 특별한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에게 인상 깊게 다가왔다. 몇 주간의 활동을 통해 멤버들에게 정이 생겨버렸고, 떠나기 아쉬울 정도로 여운을 남긴 활동인 것 같다.

정○인: 재학 중에 두 번 정도의 북클럽에 참가했는데 늘 마지막 회기일 때 남는 아쉬움이 있다. 내가 언제 다시 이렇게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아쉬움이다. 좋았던 점도 있었는데, 북클럽 인원의 전공이 모두 다 다르다 보니 다양한 관점에서 책을 접할 수 있는 점이다. 특히 평소에는 잘 읽지 않았던 과학 분야와 관련된 책에 대한 부담을 떨친 것 같아서 만족했던 북클럽 활동이었다. 이제

는 더 이상 참여할 수 없지만 내 마지막 추억을 장식해준 북클럽이라는 점에서 평생 기억에 남은 활동이 될 것 같다.



2022 년 11 월 28 일

참가자대표 : 정○인